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시간정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시설은 큰 학교들 못지 않게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로 항상 하늘이 맑고 깨끗했고 9시정도가 되어서야 어둑해졌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한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샤스타 외국인 친구들이 자차로 운전해서 거의 맨날 데리고 나가줘서 정말 편하게 다녔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코딩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도 친절하셨고 계속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아주아주 흔쾌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평소에 전공과목도 다르고 교양수업으로도 듣기 어려운 코딩을 배워서 좋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페이지를 원격으로 각자의 모니터에서 볼수 있게 해서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과제라고 할건 딱히 없었습니다. 있다면 마지막 날에 발표를 위한 한가지 홈페이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걸 샤스타 대학교 친구 한명과 순천향대학교 친구들이 일대일 짝꿍이 되어 3주간의 필드트립 중 하나를 골라 그것에 대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모든 액티비티는 학교에서 데리고 가워서 너무 편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액티비티에는 학교 관계자 친구 집에서 공식 풀파티, 샤스타 댐, 버니댐 방문, 샌프란시스코 방문, 공장방문, 위스키타운(샤스타 강가) 등 방문으로 장르(?) 불문하고 여기저기 다양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만족할만한 유익한 필드트립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샤스타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샤스타 프로그램 관리해주는 선생님께서 수영복이 필요하거나 하면 한번더 공지해주시곤 했습니다. 수영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갔으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영복을 안에 입고가서 가서 벗고 놀다가 다시 옷을 입고 오면 큰 불편함 없이 놀고 오실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뜨거운 햇살이라 강도 높은 썬크림은 필수예요!! 추가비용은 각자가 사고 싶은게 있을 때, 또는 위스키 타운에서 카약같은 탈 것들을 빌릴때만 발생했던 것 같아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2019년 올해는 덜 더운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덥긴한데 짜증날 정도로 엄청 덥지는 않았어요. 습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발뒷꿈치 등이 정말 보기싫게 갈라졌어요.. 지금 한국 돌아와서 발뒷꿈치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 같아요 꼭 썬크림 많이 바르세요 엄청많이 탑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주변에 피는 친구들이 많을수 있는데 절대 안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돌아다닐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것은 못느꼈어요. 그래도 어디든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겠죠?!!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공용화장실, 샤워실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빨래를 공동으로 하는데 세탁기안에서 먼지가 매우 많이 달라붙어 나와서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2층에 학생들이 모여서 놀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고 commons 라고 음식을 해먹거나 당구, 피아노, DVD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소통하기에, 친구들과 친해지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통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대부분 학생식당에서 이용했고 (조금 째어요,,많이) 주말에는 밥이 안나와서 밖에서 사먹었습니다. 3주간 다양한 곳을 이용할만큼 외부, 시내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비싸요! 한끼에 10~17달러 정도
교통	시내교통 관련 우버는 딱 한번 이용해봤고 거의 다 친구들이 태워다주고 같이 놀고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50만원	
식비	20만원	

즐길거리(친구들과 놀기)	10만원	
합계	대략 80~9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아침과 수업트는 강의실은 조금 추울수 있으니 강의실에서 입을 후드집업이나 남방하나 정도 긴 겔로 챙겨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글로벌빌리지에 오래 살았던 저는 전에 살던 친구 10명 정도는 따로 만났던 것 같아요 만약 학교에서 알던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한번 해보시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시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가기전에 그 친구들이 샤스타 친구들인줄 몰랐는데, 눈 등을 보고 연락이 오거나 건너건너 듣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학교에 파견되었던 애들이 많았어요!)

룸메이트는 외국인친구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징할만한, 또는 자신이 주고 싶은 물건 등을 선물로 챙겨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주이지만 정이 정말 많이 들어요, 샤스타 프로그램 참가하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여름방학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월에 헝가리로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교환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코딩 수업 들으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다른 언어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매우 자유롭게 손을 들어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교환학생을 계획중이신 분이라면 파견 직전 샤스타 썸머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에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보고 지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라고 생각해요. 전 수업을 통한 교육적인 측면, 글빌 친구들을 다시 만나거나, 새로운 샤스타 친구들을 만나는 인간적인 측면, 필드트립을 통한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3가지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치코 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	샤스타 동굴 올라가는 버스안에서 본 풍경



미국 독립기념일날 큰 불꽃을 보기위해
모인 광장(?) 사람들



Burney falls 입수 전



샌프란시스코 필드트립 -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 유니어스퀘어